

농촌마을 유형별 주민역량교육에 관한 연구

–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

권지윤 · 김은수 · 배성의*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A Study on Residents' Competency Education Needs of Rural Village Types

- Focused on the Building up Rural Village Revitalization -

Ji-Yoon Kwon · Eun-Soo Kim · Sung-Eui Ba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a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rural development business policy of our country is seeking to change the existing top-down development method to the bottom-up development one. As residents' participation in village development is being focused, residents' competence has come to be considered important. Thus, this study classified the village type by investigating resources of the target villages in Chungcheongnam-do through a rural forum, and examined education needs targeting the residents of the villages through a survey. The preferred the types,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farm villages were examined. It is needed to raise the efficiency of enhancing village development competence by regarding execution of the priority of competence enhancing education as a practical strategy. This also can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rural catchment typing research.

key words : rural development, capability building, rural village types

1. 서 론

우리나라 농촌개발사업은 1945년 해방이후 1960년대 말까지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의한 농촌마을 개발이 이루어졌고,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연차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농촌개발도 농촌지도에 의한 계몽적·수동적 성격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새마을 운동은 농촌개발에 대한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주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1980~1990년대의 주요한 공간 전략은 수도권역의 억제와 여타 지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포방하였으나 여전히 도농간의 개발 격차는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도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요어: 농촌개발, 주민역량강화, 농촌마을 유형

* 교신저자(배성의) 전화: 041-330-1403 email: sebae@kongju.ac.kr 340-7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2000년대에는 농촌공간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현저한 변화가 노정된 시기로 농촌을 보다 농촌답게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참여 활동도 주민주도형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각 부처별로 앞 다투어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증가되었다(김태명 외 6인, 2010; 최상철, 2013).

그러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담당공무원이나 소수 리더에 의해 마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도였으며 또한 물량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여,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영택, 2014).

그동안 농촌마을 유형 선행연구들을 보면, 공간단위가 시·군·읍·면 등으로 공동체를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었고, 농촌지역의 문화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해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최양부 외, 1985; 이정환, 1987; 신호철 외, 1992; 엄수원, 1997; 송두범·오남현, 2001; 윤성수·주호길, 2005; 김미영, 2006).

하지만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에 맞는

농업·농촌 정책 메카니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단위의 분류 또는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주도형의 마을 사업은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 마을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양병찬, 2000; 신중진 외 2인, 2013).

이처럼 주민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역량 또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13년부터 기존 하향식 마을개발사업 방식에서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리더 육성 및 역량개발을 위해 전국 9개 도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 프로그램인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국 NRN의 경우 일찌감치 농촌지역의 혁신 촉진을 위해 농촌개발 성공 모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고, 미국의 NERCRD는 소규모 마을과 지역의 농촌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마을단위 개

〈표 1〉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역량 강화 내용

구분	인적 자본	조직	법률 제도	주요 제안
김정호 등(2004)		●	●	참여 주체의 자발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돕는 지원체계 마련
송미령·성주인(2004)	●			주민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실질화 일반적 교육보다는 상호학습 필요
정기환 등(2006)		●	●	주민 주도의 조직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역량강화 파트너십에 기초한 정부-주민, 지자체-주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
김태곤 등(2006)	●	●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사회조직 육성
송미령 등(2006)	●	●		참여 주체들의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강화 및 체계화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지역외부의 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킹
송미령 등(2007)	●		●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 농촌개발 활동 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의 현장 조정 임무를 맡는 공무원직 신설
송미령 등(2008)	●	●	●	농촌개발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학습 확대 지자체의 사업 기획·집행·평가 등 역량 강화 지역 내외의 네트워킹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오승영(2009)	●		●	농촌관광정책사업 리더 역량강화 사전 진단을 통한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개설 대면적 컨설팅 및 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도입

자료: 김정섭 · 권인혜(2010) 보완

발 대상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를 통해 마을유형을 분류해 보고, 해당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농촌마을 유형별 선호 교육 형태를 파악하여 역량강화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주민역량과 마을의 유형

2.1. 주민 역량

마을개발사업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주민의 마을개발역량은 마을사업에 대한 자극과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역주민의 능력이다. 이러한 마을개발역량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농촌마을의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런데 지역사회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여러 가지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역량 강화를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이라는 세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UNCED, 1992).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는 개인들에게 정보 또는 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한다. 조직개발 차원의 역량 강화는 공공·민간·지역사회의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조직의 관리구조, 수행절차 등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제도적 틀 차원의 역량 강화는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직, 정부기고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또는 법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마을개발역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인적자원에 대한 농촌개발과정에서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개발과 관련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오승영(2009)은 주요 핵심역량을 ‘인간관계 역량군’, ‘감성·인지 역량군’, ‘관리 역량군’, ‘의사소통 역량군’,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등 5개 역량군에 총 15개 역량요소로 도출하였다. ‘인간관계 역량군’의 관계 형성, 고객지향성, 공동체 형성, 의사결정력 등 4개 역

량, ‘감성인지 역량군’의 조직혁신성, 변화 선도력, 문제해결력 등 3개 역량, ‘관리 역량군’의 팀워크, 비전창출, 자원관리능력 등 3개 역량, ‘의사소통 역량군’의 경청, 의사소통, 정보공유력 등 3개 역량, ‘산업지식·기술 역량군’의 벤치마킹 및 경영능력의 2개 역량 등 15개 역량이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강화해야 할 중요 요소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승영(2009)에 기초,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색깔있는 마을 농촌 현장포럼에 맞게 농촌주민의 역량을 수정·보완하여 5개 역량군 15개 역량요소를 설정하였다.

2.2. 농촌현장포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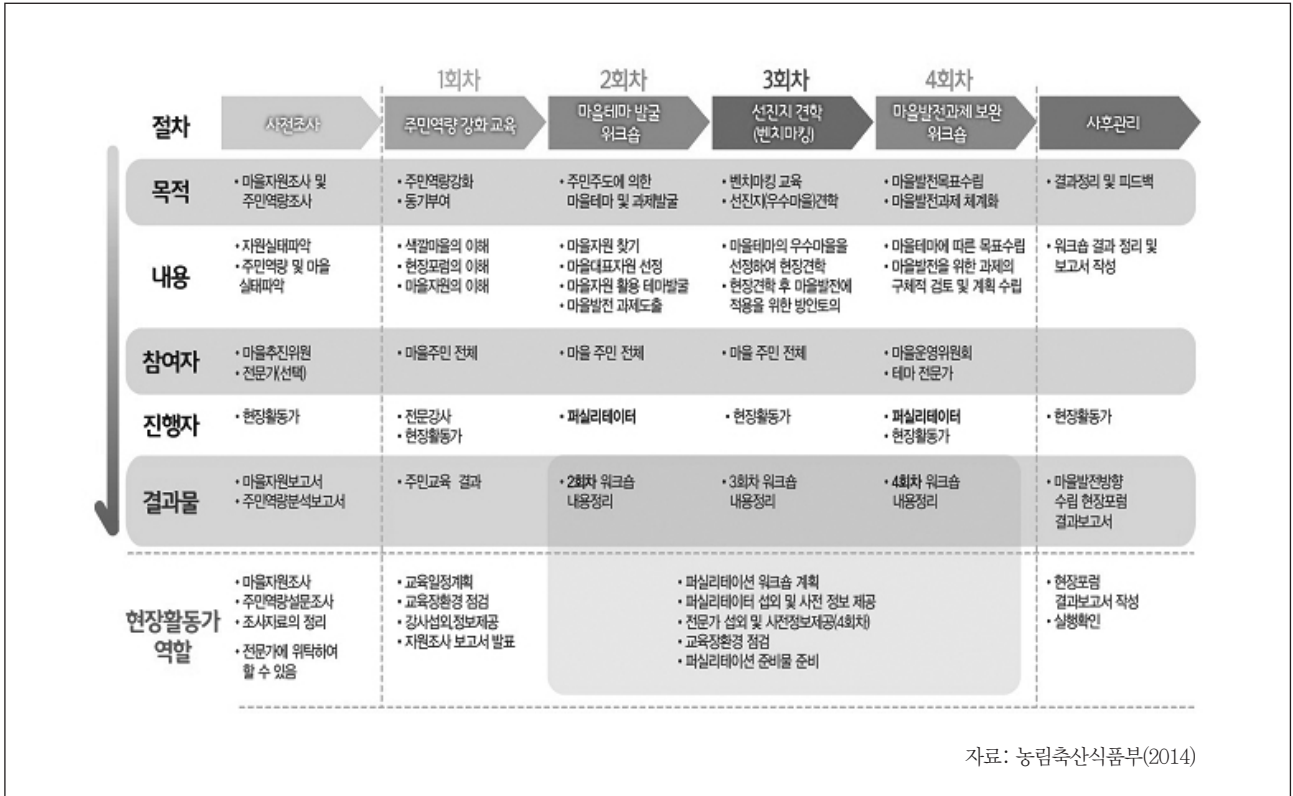
2012년 농촌현장포럼의 시범실시와 농촌개발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모델이 개발되고 2013년 전국에 농촌현장포럼과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해주는 중간조직으로 각 도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모델은 마을의 수준에 따라 3단계의 현장포럼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이 사업 준비 단계인 1단계의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단계의 현장포럼의 프레임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2〉 농촌개발사업 주민 핵심역량

역량군	역량 요소
인간관계 역량군	공감대 형성
	공동체 생활
	갈등 완화방법 및 해결
감성·인지 역량군	자기관리 및 개발
	변화선도력
	문제 해결력
관리 역량군	자원 발굴 및 개발방법
	개발계획수립
	마을개발역량
의사소통 역량군	회의 참여 능력
	효율적 회의 진행
	의사결정 방법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정보 공유 및 전달
	선진마을 사례교육
	벤치마킹
	마을사업운영기법

<그림 1>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포럼(1단계) 프레임



2.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개발 역량과 마을개발 사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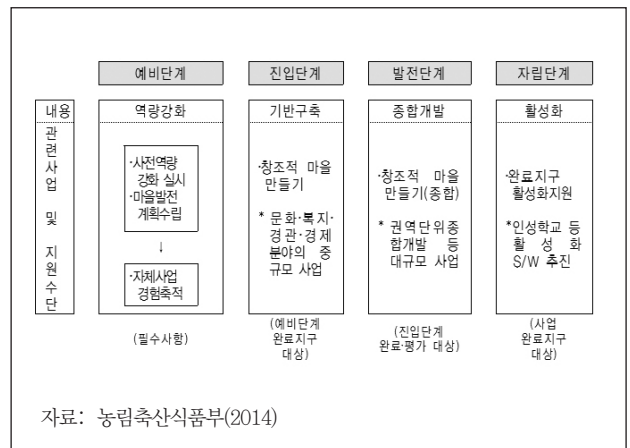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농촌 마을개발 사업 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주민 참여 저하, 미흡한 운영관리 계획 등 지역 인적역량 및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육성 한계 및 일반농산 어촌사업과의 연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역량단계별 지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로 지원방식이 개편되었다. 마을 단위 사업을 단계화함에 따라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을 역량단계별 지원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구분이 된다. 예비단계에는 농식품부-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단계이다. 이후 자체사업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평가한다. 진입단계는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마을단위 문화·복지·경관 사업 등 5억 이하 중규모사업을 지원을 통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소액사업 추진 성과와 과정 평가를 통해 발전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발전단계는 마을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마을 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창조적 마을

<그림 2>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립단계는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마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설물 방치, 사유화, 협약 이행, 주민갈등 여부 등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비단계의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과정으로 필수사항에 해당된다.

2.3. 농촌개발의 마을 유형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변화의 양태, 방향, 메카니즘을 규명하거나 농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업·농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분류 또는 유형화하고, 그 특성과 변화 동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특성분석 또는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들로서 농촌지역의 분화 현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해석하여 왔다(최양부 외, 1985; 이정환,

〈표 3〉 농촌지역 유형화 선행연구

연구자	공간단위	지표 및 방법	결 과
최양부 외(1985)	- 시·군 행정구역	- 중심도시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경지율 - 등급화	- 중심도시 인구규모(대도시-중도시-농촌형), 인구증가율(고성장-발전-정체-낙후형), 지형조건(평야-평야-준산간-산간형) 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유형으로 최종 구분-대도시근교농촌형-일반농촌형(평야, 중간, 산간)-특수농촌형(접적 및 도서 지역)
최수명(1985)	- 시·군 81개	- 요인분석	- 5개 유형: 도시농촌성조화-도시화-점이-순수농촌-한계 지역
이정환(1987)	- 139개 군 지역	- 인구, 가구, 농가, 토지이용, 광공업, 공공서비스 수준 등 53개 지표 - 요인 및 군집분석	- 8개 지역유형:수도권대도시근교-목축과수여촌-서남해안여촌-동남부공업화진행-접적지 및 태백산간-영남내륙-서남부평야-발전잠재형
성진근 외(1989)	- 139개군 지역	- 성장거점과의 접근편의성, 1차 산업에의 의존성, 공업집적도	- 근교-준근교-중간-준원격-원격지대 - 비농업-준비농업-중간자-준공업-농업지대 - 가공업개발-공업입지여건이 비교적 좋은자-조금 나쁜-가장 나쁜 지구
정안성(1990)	- 전라북도 155개 읍·면지역	- 비농업화도 지표 8개 및 농업화도 지표 10개	- 9개 지역유형:농업(2)-농업개발(2)-비농업화(2)-조정(3) 지역
신호철 외(1993)	- 정주권 개발 대상 794개 면지역	- 자연환경, 인구, 가구/촌락, 토지이용, 축산업, 광공업, 교통통신, 사업, 교육, 서비스, 관광, 문화, 재정, 접근성 등 35개 지표 - 주성분분석	- 7개 지역유형:수도권근교촌-내륙교통중심촌-제조업중심촌-내륙농업중심촌-해양평야촌-해양관광촌-산지관광촌
장우환(1997)	- 전국 1,257개 면 지역	- 임야율, 경지율 -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및 농업구조, 산지 및 임업, 중심성 및 산업 등 13개 지표 - 등급화, 중심분분석, 군집분석	
정기환 외(1999)	- 전국 읍면 지역 (726개 과소화 읍·면 선정)	-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노령 인구비율 - 등급화	- 3개 과소화 지역유형:과소화 산간-중간-평야지역
박시현 외(2001)	- 전국 읍·면지역	- 논 면적비율, 경지율, 농가율 - 등급화	- 5개 지역유형:인구증가-평야부농사-중간부농사-발농사-농업비중이 낮은 발농사 지역
건교부·국토연구원(2002)	- 전국 시·군지역	-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을 나타내는 16개 지표 - AHP법, 중첩법	- 8개 지역유형:<도시성 강>_<도시성 강+보전성 약>_<도시성 강+농업성 강>_<도시성 강+농업성 강+보전성 강>_<농업성 강>_<농업성 강+보전성 강>_<농업성 약+도시성 약+보전성 약>_<농업성 약+도시성 약+보전성 강>
성주인 외(2003)	- 전국 165개 시·군	- 인구, 통근/통학, 지역경제 특성 등 14개 지표 - 요인분석	- 4개 지역유형:비농업 강세-자족성 우세-대도시 통합-일반 농촌형
양원식(2009)	- 경남 5개 군	- 인적·자연·인위적 자원 등 12개 자원지표 - AHP법	- 5개 유형:도시화-준도시화-농촌-중산간-산간 지역

자료: 성주인·송미령(2003)을 보완

1987; 신호철 외, 1992; 엄수원, 1997; 송두범·오남현, 2001; 윤성수·주호길, 2005; 김미영, 2006).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농업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지역을 인간의 삶을 담는 종합적 실체로서의 정주생활권 또는 지역사회로 인식하고 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낙후지역, 조건 불리지역 정책대상으로서 농촌지역 정책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엄수원, 1997; 성주인·송미령, 2003; 이원호·안영진, 2011).

농촌지역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시·군, 읍·면 지역의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단일 부락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유형구분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개발의 마을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개발의 마을유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에서 분류하고 있는 마을의 유형에 맞추어서 분석하였다. 농림부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의 마을 유형은 핵심자원에 따라 크게 5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유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서 제시한 농촌마을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

다. 따라서 농촌개발의 마을 유형을 생활기반 분야, 농어업 분야, 유통가공 분야, 도농교류 분야, 생활만족 분야를 농촌마을의 유형으로 적용하였다.

3. 연구의 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마을의 유형별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55개의 색깔있는 마을 420명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방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질문항목은 총 3개 부문으로 마을 개발 교육 일반 현황, 마을 유형, 교육 수요 등을 묻는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마을 개발 교육에 대한 일반 현황에 대한 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마을 특성에 대한 인식, 교육의 필요성, 참석 여부, 참석 분야, 마을 특성에 맞는 교육의 적절성, 교육 기간의 적절성, 교육의 어려움 정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을 유형 및 교육 수요에 대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마을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마을에 맞는 개발 교육 시 참여 의향, 필요 교육 역량, 교육 시 집중적 추진 대상, 교육 적합 장소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을 유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서 제시한 생활기반 분야, 농어업분야, 유통가공 분야, 도

<표 4> 마을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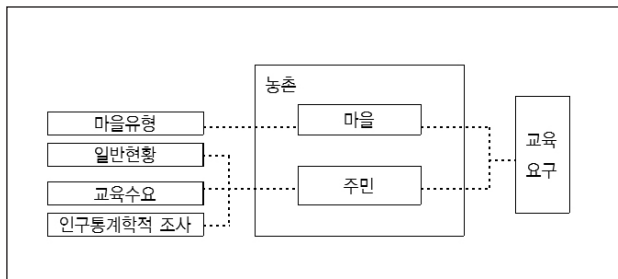
방향	마을유형	내용
인프라지향	생활기반 분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 기초여건 개선 -마을개발, 인프라, 청정에너지, 주말주택, 복지 서비스, 장수촌, 예술인촌, 생태환경 보전
경제지향	농어업 분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품목을 도입하여 농어업적 활력을 증진 -유기농, 품질인증, 품목특화, 품목 다각화, 기술혁신 등
	유통가공 분야	-농수산물 유통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 증진 -직판, 전자상거래, 로컬푸드, 저장, 가공, 식품가공, 전통식품
	도농교류 분야	-마을의농업자원, 비농업자원(경관, 전통)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진 -캠핑, 민박, 치유, 레포츠, 경관, 체험, 농어촌 유학(체류), 1사1촌, 주말농장
가치지향	생활만족 분야	-마을 주민 위주, 주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마을환경개선 활동, 건강/복지 증진 활동, 공동체 생활, 마을축제(잔치, 행사, 여행 등), 취미 여가활동

자료: <http://woorichon.kr>(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표 5〉 설문조사대상 지역

시·군	읍·면	개소수
천안시	광덕면, 북면, 성남면	4
공주시	우성면, 정안면, 탄천면	4
보령시	성주면, 청라면, 청소면	3
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송악면	5
서산시	대산읍, 인지면, 해미면	3
논산시	강경읍, 광석면, 노성면, 양촌면	5
계룡시	두마면	1
당진시	면천면, 송악읍, 합덕읍	3
금산군	군북면, 부리면, 진산면	3
부여군	규암면, 내산면, 석성면, 양화면, 은산면	5
서천군	기산면, 시초면, 판교면	4
청양군	남양면, 정산면, 화성면	3
홍성군	결성면, 광천읍, 장곡면	4
예산군	광시면, 대술면, 예산읍, 오가면	4
태안군	고남면, 남면, 안면읍	4
총 개소수	55(개소당 10부 이내)	55

〈그림 3〉 연구 모형



농교류 분야, 생활만족 분야 등 5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자료 분석

수집된 420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을 제외한 414부의 질문지가 분석을 위한 유효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마을 특성 인지도, 마을개발교육 필요성을 관계 파악하기 위하여 5단계 리커트법에 의해 5-1점을 부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은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주어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적 특성 및 마을 유형에 따라 유의수준 $p < 0.05$ 에서 교차분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여자	152	36.7
연령	40대 이하	59	14.3
	50대	130	31.4
	60대	144	34.8
	70대 이상	81	19.6
직업	전업농	240	58.0
	겸업농	86	20.8
	비농업	88	21.3
역할	일반주민	223	53.9
	마을사무장	30	7.2
	리더	161	38.9
과거 마을 리더 경험	있음	206	49.8
	없음	208	50.2
거주 기간	10년 미만	85	20.5
	10년 이상-20년 미만	35	8.5
	20년 이상-30년 미만	32	7.7
	30년 이상-40년 미만	51	12.3
	40년 이상	211	51.0

석하였고 t-test 및 ANOVA 등의 통계 분석을 실시,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4.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마을 특성 인지도 차이 분석

<표 7>은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마을 특성 인지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서 3.74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마을의 특징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집단별, 사업 참여 유무 그리고 교

육 참여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거주기간, 리더 경험 유무 등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마을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발전에 대한 관심도나 동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이 보유한 연장자들의 마을개발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 참여 경험의 유무가 마을특성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마을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4.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마을개발교육의 필요성 차이 분석

개인특성별 마을개발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5점 만점에서 4.44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들이 마을개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나 조사대상이 마을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확대해석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집단, 리더 경험 유무, 교육 참여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젊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마을개발에 대한 관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리더의 경우 마을개발과 관련하여 일반 주민들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접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의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평생교육 참여 이론이 농촌주민의 마을개발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 분석

<표 9>는 마을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이 2.78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결과이다.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

<표 7> 개인적 특성별 마을 인지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3.69	.905	t=0.042 p=0.966
	여자	152	3.69	.886	
연령	~40대(1)	59	3.97	.946	F=7.442 p=0.000 Duncan 1, 2 > 3, 4
	50대(2)	130	3.87	.830	
	60대(3)	144	3.59	.912	
	70대~(4)	81	3.40	.832	
	Duncan				
거주 기간	~10년	85	3.63	.802	F=1.21 p=0.310
	10년-20년	35	3.94	1.013	
	20년-30년	32	3.88	.942	
	30년-40년	51	3.84	.857	
	40년-	211	3.61	.907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3.89	.893	t=4.626 p=0.244
	없음	208	3.50	.857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3.84	.858	t=3.998 p=0.000
	없음	171	3.49	.916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3.82	.898	t=5.621 p=0.000
	없음	87	3.23	.727	
합계		414	3.74	.892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8> 개인적 특성별 마을개발교육 필요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4.45	.634	t=0.004 p=0.997
	여자	152	4.45	.762	
연령	~40대(1)	59	4.56	.702	F=5.018 p=0.002 Duncan 1, 2, 3 > 4
	50대(2)	130	4.52	.587	
	60대(3)	144	4.49	.679	
	70대~(4)	81	4.20	.765	
	Duncan				
거주 기간	~10년	85	4.41	.712	F=2.261 p=0.062
	10년-20년	35	4.69	.471	
	20년-30년	32	4.31	.693	
	30년-40년	51	4.61	.493	
	40년-	211	4.42	.728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4.57	.595	t=3.419 p=0.001
	없음	208	4.34	.745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4.49	.653	t=1.261 p=0.208
	없음	171	4.40	.724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4.54	.639	t=-5.191 p=0.000
	없음	87	4.13	.744	
합계		414	4.44	.680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집단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마을개발교육 내용의 적합성에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역량교육이 남성 리더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여성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을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적흥미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4.5.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기간의 적합성 차이 분석

마을개발교육 기간의 적합성 차이를 측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평균 2.99점으로 낮은 평점이 나왔다. 이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촌현장포럼의 교육이 1일 4시간이상 4회에 걸쳐 마을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어우러져 교육에 전념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집단별로는 연령집단, 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다른 집단 간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육과 관련된 많은 항목에서 연령집단과 교육 참여 유무의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교육을 주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역동성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6.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의 난이도 분석

마을개발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6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주민의 수준에 비해 교육의 내용과 진행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주민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성별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다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9> 개인적 특성별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2.93	1.286	t=2.969 p=0.003
	여자	152	2.53	1.390	
연령	~40대	59	2.66	1.409	F=0.714 p=0.544
	50대	130	2.77	1.384	
	60대	144	2.74	1.295	
	70대~	81	2.96	1.338	
거주 기간	~10년	85	2.73	1.313	F=0.567 p=0.687
	10년- 20년	35	2.86	1.556	
	20년- 30년	32	2.53	1.270	
	30년 - 40년	51	2.96	1.414	
	40년-	211	2.78	1.306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2.77	1.359	t=-.200 p=0.842
	없음	208	2.79	1.319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2.78	1.324	t=0.135 p=0.892
	없음	171	2.77	1.365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2.59	1.244	t=-1.524 p=0.128
	없음	87	2.83	1.359	
합계		414	2.78	1.338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10> 개인적 특성별 교육 기간 적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3.03	1.214	t=0.821 p=0.412
	여자	152	2.92	1.340	
연령	~40대(1)	59	3.10	1.140	F=4.214 p=0.006
	50대(2)	130	3.25	1.188	
	60대(3)	144	2.72	1.346	
	70대~(4)	81	2.96	1.229	
	Duncan	2 > 1, 4 > 3			
거주 기간	~10년	85	2.86	1.311	F=1.626 p=0.167
	10년- 20년	35	3.31	1.367	
	20년- 30년	32	2.91	1.174	
	30년 - 40년	51	3.27	1.358	
	40년-	211	2.93	1.203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2.94	1.339	t=-.741 p=0.459
	없음	208	3.03	1.181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3.03	1.307	t=0.911 p=0.363
	없음	171	2.92	1.200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2.69	1.213	t=-2.498 p=0.013
	없음	87	3.07	1.264	
합계		414	2.99	1.261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11〉 개인적 특성별 난이도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2.97	1.088	t=2.684 p=0.008
	여자	152	2.67	1.132	
연령	~40대	59	2.86	1.121	F=0.497 p=0.685
	50대	130	2.95	1.077	
	60대	144	2.79	1.188	
	70대~	81	2.86	1.030	
거주 기간	~10년	85	2.81	1.230	F=1.420 p=0.227
	10년- 20년	35	3.26	1.120	
	20년- 30년	32	2.81	1.176	
	30년 - 40년	51	2.71	1.154	
	40년-	211	2.86	1.035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2.96	1.168	t=1.804 p=0.072
	없음	208	2.74	1.048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2.93	1.100	t=1.276 p=0.203
	없음	171	2.78	1.125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2.64	1.151	t=-2.071 p=0.128
	없음	87	2.92	1.096	
합계		414	2.86	1.113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4.7.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마을 교육 참여의향 차이 분석

마을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4.2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평가에 비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마을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집단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교육의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4.8. 마을 유형별 주민의 마을교육 적극성 차이 분석

마을개발교육에 대한 주민의 적극성 정도를 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서 4.0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을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생활만족형, 도농교류형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으며 농어업형과 생활기반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을의 유형과 관련 없이 마을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개인적 특성별 마을교육 참여의향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성별	남자	262	4.19	1.030	t=-.0934 p=0.351
	여자	152	4.29	.932	
연령	~40대	59	4.39	.910	F=2.225 p=0.085
	50대	130	4.35	.905	
	60대	144	4.13	1.046	
	70대~	81	4.09	1.075	
거주 기간	~10년	85	4.26	1.037	F=0.331 p=0.857
	10년- 20년	35	4.14	1.192	
	20년- 30년	32	4.25	.916	
	30년 - 40년	51	4.35	.820	
	40년-	211	4.20	.999	
리더 경험 유무	있음	206	4.24	1.026	t=0.269 p=0.788
	없음	208	4.22	.966	
사업 참여 유무	있음	241	4.31	.908	t=1.898 p=0.058
	없음	171	4.12	1.102	
교육 참여 유무	있음	327	4.25	.979	t=0.246 p=0.805
	없음	87	4.22	1.001	
합계		414	4.23	.995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4.9. 마을 유형별 마을개발교육에 대한 필요성 차이 분석

마을개발교육의 유형별 필요성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앞의 적극성보다 높은 평균 4.45로 마을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에 상당히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교류형, 유통가공형, 생활만족형의 특성을 가진 마을들은 초기 물량 위주의 개발에 따라 주민 참여, 역량이 배제된 채 물리적인 인프라만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지역

〈표 13〉 마을 유형별 마을교육 적극성의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마을 유형	농어업형	150	3.93	1.304	F=1.673 p=0.155
	생활만족형	92	4.35	1.074	
	생활기반형	20	3.90	1.373	
	유통가공형	91	4.08	1.345	
	도농교류형	61	4.15	1.229	
합계		414	4.09	1.271	

주 :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14〉 마을 유형별 마을교육 필요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마을 유형	농어업형	150	4.35	.657
	생활만족형	92	4.52	.654
	생활기반형	20	4.15	1.040
	유통가공형	91	4.46	.704
	도농교류형	61	4.69	.534
	Duncan	5 > 1, 2, 4 > 3		
합계	414	4.45	.683	

주: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마을개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기반형 마을에서 그동안 농어업형과 유통가공형 마을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마을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또한 도농교류형의 마을에서는 지속적인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역량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마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4.10. 마을 유형별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 분석

〈표 15〉는 마을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를 마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2.78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진행되는 마을개발교육의 경우 농촌마을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주민들이 교육 내용에 이질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마을의 유지·발전에 어려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필요, 마을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

〈표 16〉 마을 유형별 교육 내용 난이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마을 유형	농어업형	150	2.79	1.173
	생활만족형	92	2.70	1.155
	생활기반형	20	2.70	.979
	유통가공형	91	2.88	.917
	도농교류형	61	3.33	1.106
	Duncan	5 > 1, 2, 3, 4		
합계	414	2.86	1.113	

주: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15〉 마을 유형별 교육 내용 적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마을 유형	농어업형	150	2.82	1.243
	생활만족형	92	2.64	1.426
	생활기반형	20	2.70	1.129
	유통가공형	91	2.67	1.383
	도농교류형	61	3.08	1.406
	Duncan			
합계	414	2.78	1.338	

주: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발에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결과이다.

4.11. 마을 유형별 교육 내용의 난이도 차이 분석

마을 유형별 마을개발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6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형의 특성을 가진 마을들은 지속적인 도시민들과의 소통 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유형의 마을보다 비교적 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12. 마을 유형별 주민의 마을교육 참여의향 분석

마을 유형별 마을교육의 참여의향을 분석한 결과 〈표 17〉과 같이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농촌주민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의 유형별 참여의향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모

〈표 17〉 마을 유형별 마을교육 참여의향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값
마을 유형	농어업형	150	4.13	1.143
	생활만족형	92	4.14	1.054
	생활기반형	20	4.05	.759
	유통가공형	91	4.41	.774
	도농교류형	61	4.41	.824
	Duncan			
합계	414	4.23	.955	

주: Likert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1=매우 그렇지 않다)

〈표 18〉 마을 유형별 마을개발교육에 필요한 역량군

구 분	마을 유형별 마을개발교육에 필요한 역량군					통계값	
	인간관계역량군	감성·인지역량군	관리역량군	의사소통역량군	산업지식·기술역량군		
마을 유형	농어업형	50(33.3)	19(12.7)	54(36.0)	18(12.0)	9(6.0)	$\chi^2=52.502$ p=0.000
	생활만족형	28(30.4)	22(23.9)	25(27.2)	7(7.6)	10(10.9)	
	생활기반형	14(70.0)	2(10.0)	2(10.0)	2(10.0)	0(0.0)	
	유통가공형	26(28.6)	4(4.4)	39(42.9)	5(5.5)	17(18.7)	
	도농교류형	20(32.8)	1(1.6)	25(41.0)	8(13.1)	7(11.5)	
합계	138(33.3)	48(11.6)	145(35.0)	40(9.7)	43(10.4)		

든 유형의 마을에서 마을교육이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마을교육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13. 마을 유형별 마을개발교육에 필요한 역량군

〈표 18〉과 같이 마을 유형에 따른 마을개발교육 역량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업형은 관리 역량군 36.0%, 인간관계 역량군 33.3%, 감성·인지 역량군 12.7%, 의사소통 역량군 12.0%,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형은 인간관계 역량군 30.4%, 관리 역량군 27.2%, 감성·인지 역량군 23.9%,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10.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반형의 경우 인간관계 역량군 70%, 감성·인지 역량군, 관리 역량군, 의사소통 역량군이 각각 10.0%로 나타났으며, 유통가공형의 경우 관리 역량군 42.9%, 인간관계 역량군 28.6%,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18.7%, 의사소통 역량군 5.5%, 감성·인지 역량군 4.4%로 나타났다. 도농교류형의 경우 관리 역량군 41.0%, 인간관계 역량군 32.8%, 의사소통 역량군 13.1%,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11.5%, 감성·인지 역량군 1.6% 순으로 나타났다.

Pearson 카이제곱 값이 52.502로 통계적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관리 역량군, 인간관계 역량군은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 요소이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감성·인지 역량군, 산업지식·기술 역량군, 의사소통 역량군도 농촌 주민들에 필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 유형별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주민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마을 특성 인지도

와 마을개발 역량교육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의 적합성 등을 분석하고 마을교육의 참여와 관련된 개인의 인식수준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개발을 위한 주민역량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을 진행하는 충청남도 55개 마을의 현장포럼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농촌마을의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마을 유형을 생활기반 분야, 농어업 분야, 유통가공 분야, 도농교류 분야, 생활만족 분야의 5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은 현행 마을개발 역량교육에 대한 내용 적합성,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했으나 교육의 필요성이나 참여도 등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역량교육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을 통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역량강화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마을 리더 등 교육의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평생교육 참여이론이 농촌주민의 마을개발 역량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체 와해에 따라 마을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은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이 인적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농촌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에 맞게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농어업형-유통가공형-도농교류형의 경우 협동력과 생산 시스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의 특성상 인간관계 역량군과 관리 역량군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생활만족형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는 마을의 특성상 인간관계 및 감성인지, 관리역량군 등의 고른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생활기반형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 간의 심리적 의존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간관계역량교육의 필요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 주민들에 대한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하는 다른 영역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단일 부락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초적인 마을 유형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마을에서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며, 후에 권역 유형화 연구에도 마을의 특성에 맞는 구분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 요구되는 교육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영택. (2014). 농촌 마을 유형별 발전단계설정을 위한 구분 지표 체계 개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김정섭, & 권인혜. (2010).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7(3), 385-418
3. 김태명, 박은병, 황정임, 소진광, & 임경수. (2010).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4. 농림축산식품부. (2013).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핸드북*. 과천: 농림축산식품부.
5. _____. (2014). *일반농산어촌 역량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6. 성주인, & 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26(2), 1-22.
7. 송미령, & 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연구보고 R482.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8. 신중진, 김일영, & 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7~2009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43-56
9. 신호철, 민말순, & 오방일. (1993). *농촌마을 및 주택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비유형에 관한 연구*. 의왕: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0. 양병찬. (2000).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학습체제 구축; 지역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농정연구*, 12, 143-164
11. 오승영. (2009).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농촌테마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 이정환. (1987).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 최상찬. (2013).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기조강연*.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14. 최양부, 이정환, 정철모, & 김향자. (1985).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09.
15. McClelland, D.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16. Spencer, L.M. & Spencer, S.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17. UNCED. (1992). *Capacity building*. UNDP briefing. Washington DC: UNCED.
18. Rural Development(2015) <http://www.woorichon.co.kr>
19. Small Village Development(2015) <http://www.chungnam.net>
20. NERCRD Target(2012) <http://aease.psu.edu/nercrd>
21. NRN mission(2012) <http://www.nrnuk.org>

Received 15 February 2015; Revised 05 March 2015; Accepted 10 March 2015



Ji Yoon Kwon is a doctor student at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Rural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a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e-mail) kwon8521@kongju.ac.kr phone)82-41-333-1380



Eun Soo Kim is a doctor student at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Shared Housing and Aged Welfare.

Address: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a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e-mail) kjceo@naver.com phone)82-41-330-1380



Dr. Sung Eui Bae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asangun, Chungnam, 340-702, Republic of Korea e-mail) sebae@kongju.ac.kr phone)82-41-330-1403